

# 2016년 5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6.5.27(금) 14:00~15:30

## ■ 주요 회의 내용

### ▲ 보도의 역할과 속보의 가치 및 심층성 제고노력 필요

- 국가적으로 당면한 주요이슈에 대하여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하여 누구도 바른 말하기를 꺼려하는 현실이 안타까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이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공감대 형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분위기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편성 등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김상선 위원)
- <5월 7일 연휴 중에 속보로 계속 "안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 아무개(실명으로 나왔음) 구속" 가 계속 뜨던데, 과연 속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 연휴에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 더욱 그러함(김용직 위원)
- 국제뉴스중 미국 대선관련 내용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트럼프에 대해 상원에서의 정치인들 지지 내용 등 심층적인 내용을 시청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뤘으면 함(박정숙 위원)

### ▲ 화면구성, 자막, 표현 주의

- 뉴스 앵커 배경으로 서울 시내 전경이 나오는데, 가끔 강풍이 부는 날에는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짐.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지럼증이 느껴질 정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면이 흔들릴 때는 다른 배경을 쓰는 게 나을 것으로 여겨짐(주철환 위원)
- 자막에 종종 오기가 있으니 스크린 기능 강화 필요. 안철수, "북핵엔 제재 (→ 제재) 와 함께 대화 협상 병행해야", 패널 소개시 패널 경력을 강석진 을지대 외대 (→외래) 교수,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정치 평론가 사례가 있었음(신현택 부위원장)
- 속보자막과 관련해 빨간색 자막이 많이 나가는데, 기존 리포트가 나갈 때 속보자막이 나가면 시청에 방해가 많이 됨. 특히 외국인 인터뷰 등에서 기존 말자막이 속보자막으로 가려지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음.
- 기자들이 뉴스 말미에 연합뉴스 000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고 연합뉴스TV 000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차이가 있으니 궁금함. 연합뉴스 소속 기자들이 리포트를 할 경우 연합뉴스000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차피 연합뉴스TV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하는 것이 낫지 않나 여겨짐(주철환 위원)

- 내주, 내달 등 문어체적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방송인만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구어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나아보임(주철환 위원)
- '맛별이'에 대응하여 '홀별이'라고 지칭하던데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좋은지 살펴 보시기 바람. 연합뉴스TV 외에도 거의 모든 매체에서 사용한 것 같기는 하지만 어색하였음(김용직 위원)
- 뉴스 마지막부분에서 기자 이름을 말할 때 대부분 "연합뉴스TV 0 0 0입니다"라고 맺음말을 하는데 가끔 "연합뉴스 0 0 0입니다" 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음(박동민 위원)
- 기사 제목과 자막에 이름과 함께 직함도 함께 써 주는 것이 어떨까 함. 16일 방송에서 "신격호, 정신감정 위해 서울대병원 입원"이라고 자막이 나왔는데 언론인 분이므로 신격호 회장이라고 적어주는 것이 좋겠음(박동민 위원)

#### ▲ 프로그램 편성 등 제안

- '고성국의 담담타타'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후속이 없는 것은 아쉬운 생각임. 타 방송과 차별되는 포맷으로 시사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프로그램 제안)
- 평상시 프로그램이 뉴스 위주로 방영됨. 주말에 특화되어 방영되는 클릭 베스트 컷, 여행과 풍경, 기업비사 등을 평일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면 뉴스만 보는 지루함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됨(정현주 위원)
- 해외특파원이라는 좋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해외 소식을 전해줄 수 있도록 국제뉴스 시간을 마련해보는 것이 좋을 것(신현택 부위원장)
- 기업, 공공기관 등의 협찬을 바탕으로 한 캠페인 형태의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이슈를 대상으로 관련 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의 협찬을 통하여 년 중 캠페인 형태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영하면 어떨까함(김상선 위원)
- '님도 보고 뽕도 따고' : 현장을 찾아가는 생생한 프로그램을 신설해 보면 어떨까 함. 연구현장, 기업현장, 교육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장에 기를 붙여 넣어주고 회사 매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음. 정부 각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매주 또는 매월 주기적으로 선발·시상하는 기업, 연구원, 기술 등을 소개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관련되는 광고 등을 유치한다거나 기존의 시상제도 외에도 별도의 시상제도 신설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임(김상선 위원)
- 주말 뉴스에 아나운서들이 현장에 나가서 행사 등을 소개하는데 이목이 쏠리고 흥미를 유발시킴. 중랑천 장미축제 등 정치뉴스 위주의 연합뉴스TV의 딱딱함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음. 생활에 친밀한,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뉴스 소재들을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음(주철환 위원)

- 연합뉴스 TV를 보면, 같은 포맷의 뉴스가 계속 되는 느낌이 강함. 그래서 연합 뉴스의 강점과 텔레비전의 특성을 결합한 뉴스로 국제뉴스 시간대를 마련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음. 우리가 세계화 시대를 살지만 한국 매체의 국제뉴스는 너무 양도 적고 깊이도 부족하므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함.
- 같은 맥락에서 경제나 산업 뉴스도 고려해보면 좋겠음. 지상파 텔레비전은 탐사 보도를 고정으로 하지만, 연합은 전문성을 강조한 영역의 뉴스를 강화하는 편이 더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이재경 위원)

#### ▲ 긍정적인 의견 및 기타 의견

- 뉴스1번지 프로그램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과 이영작 서경대학교 석좌교수 등 중량감 있는 인사의 긴장감 있는 토론과 진행자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인하여 다른 방송으로 채널을 바꾸기 힘들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라 생각됨(김상선 위원)
  - 기사 제목중 '확산하는 감원 열풍'은 '확산되는 감원 열풍'이 자연스러운 표기라고 생각됨(박동민 위원)
  - 트렌드 지금 여기나 연중기획 하모니 등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영되는데 다시보기 서비스가 가능한지 궁금함. 홈페이지 등에서 뉴스 외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찾아볼 수 없음(주철환 위원)
  - 시청자위원회에서 논의 되는 내용이 뉴스에 적용이 잘되고 있는것 같음. 옥에 티는 9시 뉴스에서 사진으로 보는 뉴스에서 터치스크린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앵커가 진행하다가 당황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음. 터치스크린 운용이 조금 아쉬웠음(박정숙 위원)
- . (끝)